

신안 '1004섬 분재공원' 명품공원 자리매김

압해읍 송공산 13ha 조성
연간 관람객 90만명 넘어
홍도 재연 석가산 설치도



신안군 '1004섬 분재공원'이 연간 9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분재를 테마로 조성한 '1004섬 분재공원'이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9년 압해읍 송공산 남쪽 기슭 13ha(4만여 평)에 조성한 '1004섬 분재공원'은 연간 관람객이 9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곳에는 분재원과 야생화원,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 온실, 애기동백 군락지 등이 갖춰져 있다.

분재원과 온실에는 금송, 해송, 소사, 철쭉, 주목, 향나무 등 2000여 점의 다양한 명품 분재와 아프리카 석조 문화의 진수인 쇼나조각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분재공원은 여러 독지가들의 기증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최병철 박사가 평생 가꾼 명품 분재 500여 점과 분재소재 8000여 점, 서적 300여 점 등을 기증했다.

군은 최 박사의 뜻을 기려 지난 2013년 최병철 분재기념관을 개관해 운영 중에 있

다. 또 저녁노을미술관은 1004섬 신안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건축미를 뽐내며 전시실에는 우암 박용규 화백이 기증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 미술관 내 한쪽 코너 북카페에는 미술과 일반교양 서적 등 5000여 권이 비치돼 방문객들이 차(茶)와 함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분재공원을 찾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미니동물원을 만들어 비둘기, 토끼, 잉꼬, 판

상용 닭에게 먹이를 주는 생태체험을 병행하고 있다.

분재공원과 등산로 주변에 식재한 애기동백나무 5000여 그루는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빨간색의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산을 붉게 물들이는 동백꽃은 빨강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일품이다. 특히 눈 내리는 날 백설이 함께 물든 애기동백꽃은 가히 환상적이다.

군은 '1004섬 분재공원'의 재도약을 위해 천연기념물 홍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재

연한 석가산(단오섬)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휴게소를 내년까지 신축하고, 이 곳에 특산물 판매장과 친환경 음식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 중 최고 재료로만 사용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도 책임질 계획이다"면서 "내년을 분재공원이 재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지자체 행정정책행복지수 평가에서 오금열(오른쪽)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이 대상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지자체 행정정책행복지수 평가 대상 수상

함평군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지자체 행정정책 행복지수 평가에서 대상 수상하며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제,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 등 정량 정성지표 10개 부문을 지수화해 평가하는 것으로 함평군은 주민행복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차량 임대사업체 유치, 세수 확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도를 통한 군민 중심 행정, 찾아가는 이동진료실을 비롯한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7월 하이글로벌그룹과 내년까지 모두 4만 5000대 가량의 렌터카를 지역에 등록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말 기준 4억 3000여만원의 세수

를 올렸다. 또 9월에는 지역버스업체와 '함평군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10월 1일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요금만 받으며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함평나비대축제가 올해 7억9000여만원의 입장료 수입과 10억여원의 농·특산물 판매액을 기록했고, 21만여명이 몰린 대한민국 국경대전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액이 11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이운행 함평군수는 "이 상은 500여 공직자와 3만 4천여 군민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 흘린 결과라 생각한다"며 "모든 영광을 군민과 향우, 동료 공직자 여러분에게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12년만에 부활' 함평군 농업인상담소 지역 농민들에 호응

농업기술 상담·선진 정보 제공
과수·딸기 등 농촌지도사 배치
일대일 맞춤형 현장영농서비스



농업인상담소 지도사가 함평군 나산면에 딸기 재배농가를 찾아 딸기양액재배 자동시스템 등 선진농업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12년 만에 부활한 함평군 농업인상담소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재개소한 농업인상담소는 농기계임대사업장과 연계 운영되면서 농업인들의 민원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업기술 상담, 선진 농업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형 현장영농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딸기, 과수, 단호박 등 주산지 특기 농촌지도사를 각각 학교면 중부상담소(최동섭), 손불면 서부상담소(박석준), 해보

면 동부상담소(심학섭)에 배치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작목별 모임체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인상담소가 이용한 한 농업인은 "농업인상담소가 시기별로 농업인들

이 실천해야 할 내용과 선진 농업기술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며 "농업인 상담소가 영농현장의 해결사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신안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
수제이불·천연화장품 등 전달

신안군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 대상자 300여명에게 수제이불과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등을 대신 구매해 전달키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게 연간 7만원을 지원해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령인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번거로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대신해 수제이불과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수제가방 등의 수제공예품을 구매해 전달하는 물품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2342명 중 카드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주민 300여명에게 2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와 카드발급 독려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 300여명이 추가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2차 물품 구매대행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무안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협의 마무리

무안군은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각 마을회관에 운영한 이동민원실과 토지소유자 방문을 통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수반·모촌지구, 운남 내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의 마무리 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 3개월 동안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동민원실(사전)을 운영해 사업지구 현장 경계협의의 마쳤고,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는 유선협의 및 모바일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경계협의의 마무리했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의 시 '찾아

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 드론촬영 영상과 현황측량자료, 지적도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협의도면을 제작해 토지소유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경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지만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 있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무안군 복지시설 2곳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무안군 지역 복지시설 2곳이 '2019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7000만원의 숲 조성자금을 지원받는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소규모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분야에 무안군 삼향읍 '진성원'과 현경면 '참사랑 노인전문요양원'이 2019년도 사업대상지

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노숙인복지시설인 진성원은 200여명의 생활인들이 이용하는 나눔숲을 조성, 심리적 안정 도모와 함께 자연친화 일예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